

도시가스원료용 LPG가격 12% 인하 石油사업기금도 톤당 215달러로 내려

정부는 지난 6월 6일 도시가스 사업자들의 원료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연료용 1 PG 가격을 정유사공장도가격기준으로 kg당 2백95원96전에서 2백60원 41전으로 12% 내리는 한편, 수입LPG에 부과하는 석유사업기금도 최근의 환율상승 등을 반영, 톤당 2백 60달러에서 2백15달러로 45달러 인하 조정했다.

그러나 소비자용 도시가스가격은 내리지 않았다.

이번 도시가스원료용 LPG 가격 인하조치는 도시가스제조원료로 LPG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나프타를

低硫黃油 사용확대 가정에서도 의무화

서울시내의 각 가정을 포함한 전체 유류사용자의 저유황유사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환경보전법에 해당되는 각종배출시설 및 경유차량에 대해서만 실시해 오던 고유황유 사용금지조치를 시내 전유류사용자에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고유황유사용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말 서울의 대기중 유황함유량이 0.066ppm으로 기준치 0.05 보다 웃돌아 이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저유황유란 유황함유비율이 B-C

사용하는 사업자보다 20~30%의 원료비를 더 부담하는 등 사업자간의 원료비불균형현상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또 수입LPG에 대한 석유사업기금 인하조치는 작년 6월 기금조정 이후 환율상승, 수입물량 및 가격변동, 이번 LPG 가격인하에 따른 정유사들의 추가부담 등을 반영, 조정한 것이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가정과 요식업소에서 사용하는 LPG도 전기나 수도요금과 같이 가스계량기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후납할 수 있도록 프로판가스의 중량단위 이외에 용량단위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油은 1.6% 이하, 경유는 0.4% 이하인 경우를 가리킨다.

마두라原油 국내도입 금년 하반기부터

崔東奎 동력자원부장관은 지난 6월 3일 『인도네시아 마두라유전에서 하루 1만5천배럴씩 생산된 원유가 오는 9월경부터 국내에 도입되고, 86년 하반기부터는 北에멘 마리브유전에서도 생산이 개시돼 그 원유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이날 국회商工委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이미 温山비축기지를 완공했고, 금년말 거대

한 지하비축기지가 추가로 완공되면 오는 88년까지 60일분의 정부비축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한 『원유도입의 경우, 국제석유시장의 여건을 적절히 활용, 장기계약에 비해 배럴당 0.4~0.6 달러가 싼 현물시장에서의 도입량을 전체물량의 25%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麗水에너지 정식 발족 LPG수입공동회사로

국내 LPG수입공동회사가 지난 6월 1일을 기해 麗水에너지(대표 金鳳完)로 정식 발족했다.

이에 따라 지난 80년부터 국내LPG수입을 담당해온 正友에너지는 설립 5년만에 그 임무를 중단했다.

정부의 LPG수입창구 일원화방침에 따라 지난 해 6월 湖南精油가 正友에너지를 인수한 후 지난 5월 29일 합병주주총회를 끝냄으로써 LPG공동수입회사인 麗水에너지가 설립된 것이다.

工事대금原油 늘어나 82년이후 7천 2백만배럴

지난 82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업체가 中東지역에서 공사대금 조로 받은 원유는 모두 7천 2백98만배럴로 이 가운데 4.2%인 3백5만배럴은 국제원유 시장에서 팔지 못해 국내로 도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동력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中東산유국의 제정 수입 감소를 반영, 우리 건설업체들이 이 공사대금조로 받은 원유는 82년의 6백만배럴에서 84년에는 4천 1백만배럴로 무려 7배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대금조로 원유를 주는 나라는

리비아, 이란, 이라크, 카타르등 4개국이며, 원유를 받은 국내업체는 現代, 三星, 大宇, 大林, 漢陽 등 모두 7개 업체이다.

그런데 원유 7천 2백만배럴은 약 22억달러어치이며, 국내소비량의 1백40일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휘발유값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日本, 美国보다 각각 26.9%, 153% 비싸

우리나라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은 日本보다는 26.9%가 비싸고, 美国보다는 무려 1백 53%나 더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동력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배럴당 1백20달러60센트인데 비해 日本은 배럴당 95달리, 美国은 47달러50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台灣은 99달러60센트, 프랑스는 92달러 80센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휘발유 소비자가격이 비싼 것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휘발유의 특소세율은 우리가 1백%인데 비해 台灣은 14%이고, 美国은 전혀 없다. 또 日本은 세계가 우리와 다르긴 하나, 우리의 절반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휘발유 뿐만 아니라, 등유, B-C油 등도 다른나라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B-C油는 우리나라가 배럴당 33달러90센트로 台灣의 27달러90센트보다 21.5%가 비싸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油公, 제21차 무사고 100만인시 안전기록달성 金恒德사장, 계속적인 안전조업 당부

油公 울산공장은 지난 4월 22일 13시를 기하여 제21차 무사고 100만인시 안전기록(125일간)을 달성, 지난 5월 17일 오후 3시 30분 공장 후생관앞 광장에서 조규향 인사·총무담당 전무이사와 윤대욱 공장장을 비롯한 관계 임원 및 300여명의 종업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조규향 인사·총무담당 전무이사는 윤대욱 공장장에

게 사장명의의 표창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김항덕 사장은 조규향 전무이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이 자랑스런 업적은 평소 공장의 전 임직원들이 공장장을 중심으로 발휘한 투철한 애사심과 사명감, 그리고 안전 의식의 결과』라고 말하고,『특히 이번 21차 100만인시 안전기록은 지난 3월부터 4월에 걸쳐 실시된 경기 보수 작업 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재해 운동을 전개한 결

과로 이룩된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라고 치하하였다.

또한 金恒德 사장은 『그동안 우리는 국내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석유화학 기초원료의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으며, 이제 우리는 2천년대의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으로서의 꿈을 키우며,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金恒德 사장은 또한 『우리는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유전개발에 과감히 진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경제성 높은 대체에너지인 CWF사업, LPG 수입기기 설치, 저밀도 폴리에틸렌 제조시설 설치, 나프타 분해시설 배가증설,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NAC 설치 사업 등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적 소명』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새로운 소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 이래 지금까지 쌓아온 경영과 기술을 바탕으로 유공의 임직원 모두가 경영, 기술,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합심함으로써만이 가능할 것』이라 하였다.

주요도로 시멘트로 포장 2001년까지 8%로 높여

건설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고속도로 및 시가지 외곽국도는 모두 시멘트로 포장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88고속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한데 이어 새로 신설되는 서울-大田간 중부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국도등 매년 총연장 2백km의 도로를 시멘트

로 포장, 오는 2001년까지 시멘트 포장도로의 비율을 현재의 2.8%에서 8%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공사가 많은 시가지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油公, 대한석유지주 합병 금사장, 투자자권익보호 다짐

油公은 지난 4월 20일자로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했다.

이에 따라 油公은 합병보고를 위한 85년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지난 5월 7일 워커힐 가야금홀에서 개최하고 앞으로의 회사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金恒德 油公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통해 투자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油公은 올해에도 국내석유산업 중 최대의 매출액과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시현하여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사장은 또한 『올해에도 석유와 석유화학부문의 사업환경은 탈석유, 에너지절약시책, 제품간 수급불균형, 환율과 환경보전등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이러한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건실한 기업경영의 터전을 마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책임경영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주제위의 수임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油公과 대한석유지주는 지난 84년 10월 2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31일 양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함에 따라 지난 4월 20일자로 油公이 대

한석유지주를 정식 합병하게 된 것이다.

油公울산공장 가장행렬 울산공업축제에 참가

油公 울산공장은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개최된 제18회 울산 공업축제에 참가하여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油公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이 공업축제는 울산시가 공업단지로 지정 선포된 것을 기념하여 울산시의 공업발전상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서 공장은 가장행렬을 비롯 모범용사 선발 및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였다.

울산공장은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가장행렬에서 공장을 소개하는 모형 차에 대형 주유기 및 복지사회 건설의 상징도안 등을 부착하여 2천년 대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나타냈으며, 특히 油公의 마스코트 코끼리의 익살스런 재롱은 연도의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첫날 3만여 시민이 모인 가운데 거행된 서막식에서 공장 실험실의 배문태 사우는 모범 산업용사로 선발되어 울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윤대욱 공장장은 공업축제가 끝난 후 6월 4일 본행사에 적극 협조한 공로로 울산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慶南道知事 공장방문 CWF 개발에 깊은 관심

김주호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이수동 도교육감, 박종택 울산시장 등 일행 28명이 지난 5월 28일 油公 울산공장을 방문, 윤대욱 공장장으로부터 공장 운영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이들 일행은 1사택 클럽에서 공장 간부들과 함께 오찬을 가진 후, 본관 브리핑룸에서 공장현황을 청취한 다음, 공장 전지역을 돌아보았다. 이날 김 도지사는 油公이 대체에너지로 개발하고 있는 CWF(석탄·물 혼합 연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반기 분임조장 교육 油公 울산공장에서

油公 울산공장은 지난 5월 30일 후생관 2층 대강의실에서 공장내 70여명의 새마을 분임조장이 참석한 가운데 85년도 전반기 분임조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제안 및 분임조 활동을 통한 공장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제안규정과 제안처리요령 및 분임활동에 대한 새로운 기법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강의교육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타기업의 활동사례를 전달받고, 자유로운 토론을 가져 업무 정보처리 및 관리역량 신장에 많은 도움을 받

았으며, 「누구나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 개발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제안에 대한 의욕을 더욱 고취하였다.

윤활유 판매원 기술 교육 油公 윤활유영업부 주관

油公 윤활유영업부는 각 지사 및 사무소의 윤활유 판매원을 대상으로 85년도 전반기 윤활유 기술교육을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대구에서 실시하였다.

윤활유 판매요원의 판매능력 향상을 위한 이번 교육에서는 윤활유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방안을 중점 토의하였으며, 참석자 일동은 교육후, 교육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일합섬 경산공장을 견학하였다.

모내기 및 보리베기 지원 油公 울산공장 100명 직원

油公 울산공장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6월 8일과 10일 양일간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번 농촌 일손돕기 운동에는 공장 종업원 100여명이 참가하여 울산시 용연동과 울주군 범서면 내 1, 200평의 모내기와 2, 000평의 보리베기를 지원, 바쁜 농촌의 일손을 덜어주고 지역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였다.

한편 공장 윤활유생산과 직원 11명도 농번기를 맞아 지난 6월 2일 휴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울주군 농소면 소재 이실범 사우 가정의 500여평의 논에 모내기를 지원, 동료 가족의 걱정을 크게 덜어주었다.

油公 여사원 교육 실시 상호이해와 애사심 고취

油公 본사 및 전사업장의 여사원을 대상으로 한 85년도 여사원 교육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6일 사이 1박 2일 과정으로 1차, 2차로 나뉘어 선경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여사원들의 업무수행 능력배양과 근무자세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본사 및 전국사업장에서 175명이 참가하여 선경경영관리체계,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 문제해결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음과 아울러 단체생활을 통한 상호이해와 애사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油公 부문대항 축구대회 재무부문 또 우승

제 3회 油公 본사 부문대항 축구 대회가 축구 동호회 주최로 지난 6월 8일 여의도 고수부지 축구장에서 개최되었다.

전년도 우승팀인 재무부문을 비롯하여 총 8개 부문팀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다수의 부과장급 간부직원들과 젊은 사원들이 함께 어울려 선수로 출전하는 등 높은 참여와 호응 하에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재무부문이 우승, 작년에 이어 2연패를 하였다.

이번 대회 입상팀 및 개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우승 : 재무부문
- ◇준우승 : 석유사업기획부문
- ◇3위 : 사장실, 엔지니어링부문

- ▲최우수선수상 : 주상진(전산부)
- ▲우수선수상 : 유광동(정유·수급조정부)
- ▲득점상 : 김남준(3골, 원유·제품부)
- ▲감투상 : 윤규태(사장실), 박현종(기술부)

油公 울산공장 야구대회 간부들간의 친목증진

油公 울산공장은 지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장내 야구장에서 과장급 이상 전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야구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는 간부들간의 친목과 코오디네이션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생산, 공무, 노무관리, 종합팀으로 나뉘어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는데, 한 두번 창공을 가르는 시원한 안타가 있은 반면, 피칭미스와 에라를 연발하여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대회 결과 개인별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조만석 과장
- ▲우수투수상 : 오천석 부장
- ▲우수상 : 김완식 부장
- ▲타격상 : 전진언 과장
- ▲미기상 : 손대식 차장

일선 감독자 체육대회 油公 울산공장 친목위해

油公 울산공장은 지난 5월 6일과 5월 20일 양일간 공장내 경기장에서 일선 감독자 2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정기보수(Shut-Down) 기간

증원 활한 업무협조를 기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배구와 족구 및 첨석자 전원이 함께 뛰는 축구경기를 가져 일체감 조성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油公 산악회 덕유산 등정 30km 능선길을 종주

油公 본사 산악회 회원 12명과 경북지사 산악인 1명 등 13명은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라북도 덕유산을 등정하였다.

산악회원들은 첫날 영각사 절 밑에서 일박을 하고, 이튿날 남덕유산을 거쳐 월성치, 삿갓고개, 무룡산, 동엽령을 지나 덕유산 정상에 이르는 굽이굽이 엄마풀 같이 부드러운 30km 능선길을 하루에 종주했다.

마지막 날 회원들은 8km에 달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의 비경을 음미하며 서울로 돌아왔다.

油公공장 여직원 야유회 단결과 우의 다져

油公 울산공장 여직원 28명은 지난 6월 8일 양산군 서생면 소재 대송등대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여직원들은 아름다운 바다 풍치림으로 둘러싸인 등대 뒤 잔디밭에서 편을 나누어 피구와 릴레이 등 단체경기를 하면서 단결과 우의를 다지고, 油公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두텁게 하였다.



興國 판매요원 일본 연수교육 주유소경영 현대화 위한 산지식 습득

홍국상사 판매요원 10명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26일까지 14박 15일간 日本 교또석유(共同石油) 중앙연수소에 입소하여 日本의 석유 유통구조와 주유소 판매전략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이번 연수교육은 홍국상사가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영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교또석유 계열 상유고교(三油興業)와 상호

경영기법의 교류관계를 맺고 연 1회 이상 상호 방문하기로 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4월에는 상유고교 판매요원이 홍국상사를 방문했었다.

이번 연수교육은 한·일 유류판매 경영기법 교류의 태동이라는 점과 주유소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산지식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湖油 창립18주년기념식 具사장, 기업의 체질강화 강조

湖南精油는 회사창립 18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7일 본사, 공장 및 각 사업장별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본사에서는 金鍾環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내식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다.

이날 具平會사장은 金鍾環부사장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기업생존의 문제에서 한걸음 나아간 도약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의 극심한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개인의 체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주변환경을 민감하게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개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한편 전체로서의 조직력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具사장은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들은 아직도 회사의 안정·발전을 위해 시련과 인

내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조만간 우리의 노력이 더욱 착실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날,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보다 만족할만한 보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표창을 받은 모범사원은 다음과 같다.

- ▲이기동(총무부)
- ▲양금채(법무부)
- ▲남기돈(재정부)
- ▲김홍익(건설부)
- ▲김태연(全州저유소)
- ▲김문수(馬山저유소)
- ▲장성인(중부영업소)
- ▲이영철(영업기획부)
- ▲박성희(직매부)
- ▲박정광(공장운영부)
- ▲김태호(공장생산부)
- ▲김종윤(공장총무부)
- ▲경연수(공장설계부)

▲박문기(공장생산기획/전산부)
▲황정덕(공장정비부)

湖油, 산업체 견학 실시 전문향상훈련 일환

湖油는 공장 제4기 세마을 산업체 견학 향상 훈련을 지난 5월 1일부터 3박 4일간 19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이번 과정은 우수 세마을 산업체를 견학함으로써 호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이고 직업관의 긍정적 변용을 도모하며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의 선진사례를 비교·연구하고 애사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주요일정을 보면 한국 TC전자 마산공장, 금성사의 창원공장, 구미연수원, 구미공장, 쌍용정유 온산공장 등의 산업체를 차례로 방문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이 업무수행상의 시야를 넓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해야겠다는 결심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결같이 입을 모았고, 회사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감안하여 6월과 9월 2차례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湖油 개발연수과정 실시 고급관리자 대상으로

湖油는 지난 5월 1일부터 2박 3일간 상무이사, 이사, 부장 등 16명을 대상으로 고급관리자 연수과정을 실시하였다.

작년에 이어 실시된 이번 과정은 고급관리자들에게 기업의무 환경변화 및 적극적 대응책 강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타사의 사례를 통한

업무의 개선방향을 설정토록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부사장의 훈시와 「기업환경 변화와 고급관리자의 능력요건」이라는 주제의 특강에 이어 참가자 상호간에 간단한 업무 간담회를 가진 뒤 바로 산업체 방문에 들어가 금성사 TV사업부, 금성반도체 제1공장,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유공울산공장 등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과정을 통하여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였고, 타부서와의 상호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내년도에도 이번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과정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칼텍스 조사연구단일행 湖油 여수공장 방문

Mr. L. A. Layburn을 단장으로 한 칼텍스 연구단 일행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일간湖油 여수공장을 방문하였다.

칼텍스 연관 정유공장들의 현황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湖油의 실정을 칼텍스네의 다른 정유공장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来韓한 조사단 일행은 공장 경영총과 각 관련부장과 업무부문별로 폭넓은 토의를 하였다.

日本語교육 제4기 개강 湖油, 본사 부·과장 대상

국제화 추세에 따른 사원의 어학 능력 함양과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湖油의 제4기 사내 일본어 교육이 지난

5월 13일 개강되었다.

부·과장급 12명을 대상으로 주4일간 오전 8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50분간 12층 연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초·중·고급과정으로 나누어서 총 50주간에 걸쳐 실시된다.

湖油 임금 5% 인상키로

3월 1일자로 소급 적용

湖南精油는 금년도 임금인상을 결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금인상을 전 사원에게 5%(호봉승급분 제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인상시기는 3월 1일자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100만인 걷기대회 참가 京仁 장애자 돋기 위해

京仁에너지는 6월 1일 인천YMCA에서 주관한 지체장애인을 돋기 위한 100만인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지원금을 기탁하고, 인천 신홍국민학교에서 송도까지의 구간을 사랑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내딛었다.

京仁, 분임활동 경진대회 품질관리 우수분임 표창

京仁에너지는 지난 5월 30일 공장세마을 품질관리 분임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8개 분임조가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최우수상에는 IMPACT WRENCH의 성능을 향상시킨 정비부의 「다람쥐분임조(김태석)」가 차지하였고, 우수상에는 지하맨홀내의 부식을 방지한 발전부의 「동대분임조」와 노출된 켈 보온

으로 연료비를 절감한 생산부의 「백 곰분임조」가 각각 차지하였다.

京仁, 사우에 발휘 전직원의 정성모아

京仁에너지는 생산부 김경진 사우의 딸이 악성종양으로 치료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자 사우에를 발휘하여 전직원이 성금을 모아 전하고 그 어려움도 함께 나누었다.

京仁, 전방군부대 위문 일선장병의 노고 위로

京仁에너지는 지난 6월 3일 최 전방 견학을 통하여 시국관을 점검하고 일선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80여명의 직원이 참가하여 ○○전선의 연화봉을 견학하고 위문 품을 전달하였다.

7회 창립기념대회 개최 京仁, 테니스동호회

京仁에너지 테니스 동호회는 지난 6월 6일 공장 테니스코트에서 전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제7회 테니스동호회 창립기념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원들은 그간의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우승 : 조재승(총무부), 박상빈(비상계획부)
- ▲ 준우승 : 엄봉훈(정비부), 민현압(발전부)
- ▲ 3위 : 박병규(총무부), 신수천(정비부)

雙龍, TOEIC 모의시험 실시 국내기업평균수준 월등히 상회

雙龍精油는 지난 5월 13·14일 양일간에 걸쳐 영어교육과정 수강자 및 8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본사 근무 대졸사원 40명을 대상으로 TOEIC (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모의 시험을 실시했다.

사원의 영어 통용력에 대한 자기 평가와 회사에서 실시해 오고 있는 영어교육실시 이후의 사용능력 향상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이번 시험은 사내에서 처음으로 측정한 영어능력 평가 시험이라는 데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번 영어통용능력 평가시험은 T-OEFL을 출제하는 美国의 非營利

연구기관인 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시험방식에 따라 실시한 결과 공체사원 평균점수는 563.4로 나타났으며 이중 상경계 출신 사원의 평균점수는 572.8을 기록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전체사원 평균점수는 530으로 집계되어 국내기업 평균 447.5보다 82.5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OEIC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와 서강대학교의 접두에 의하면 국내기업의 업종별 평균점수는 건설업 426.2, 섬유·제지업 441.5, 석유업 512.1로 되어있다.

雙龍精油는 이번 모의시험 실시

효과를 계기로 앞으로는 각종 외국어교육에 대한 객관 평가를 점진적인 방향에서 확대 적용 실시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사원의 자기계발 및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전 사원의 외국어능력 평가가 보다 체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雙龍 에너지사용 평가 불합리요인 과감히 시정

雙龍精油 温山공장은 지난 16일 에너지절약회의를 갖고 85년도 1·4분기 실적분석과 향후 실시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4분기의 목표 절감량 대비, 에너지 사용실적을 분석하고 열사용 설비별 목표관리 실적과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사업 추진결과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제안사항을 폭넓게 협의했다.

에너지절감을 주관하고 있는 관리실은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83년도 기준대비, 전반기(6월말까지) 목표절감률 13.0%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불합리 요인의 발굴,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85년말 절감목표는 13.9%이다.

소방기능 경연대회 열어 雙龍 인천저유소

雙龍精油 인천저유소는 지난 5월 28일 교대반 3개조와 주간조등 4개팀이 참가한 소방기능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소방복 착용, 소방차량 조작 및 방사속도 등에 대한 숙달 정도를 평가한 결과 교대반



C조(조장: 조상환)가 우승을 차지했다.

소방기능 경연대회는 화발유 출하상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킴은 물론 화재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소화기취급 능력을 포함하여 격월제로 실시할 계획이다.

道民 체전에서 3위 雙龍공장 배구팀

雙龍精油 온산공장 배구팀(단장 : 주찬선 업무부장)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남 진주에서 개최된 경남도민 체전에 울주군 대표팀으로 출전, 3위를 차지했다.

경남도내 12시·군 대표팀이 참가한 배구대회에 순수한 아마추어로 구성된 쌍용정유 온산공장 배구팀은 3차전에서 고성군 대표팀과 막상막하의 접전 끝에 2대 1로 분패, 우승을 고성군 팀에 넘겨주면서 3위에 머물고 밀았다.

청강리 주민 김수완씨의 논을 비롯한 총 3,000여평에 모내기를 하였다.

極東, 국가유공자노고 위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極東石油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3일 위로간담회를 열고 사내 국가유공자들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부산공장에 근무중인 국가유공자들과 간부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장홍선 사장이 특별히 참석, 국가유공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기념품도 전달하였다.

가짜화발유포상금 지급 포상제도 실시후 최초로

가짜화발유신고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이 제도 실시 이후 첫번째로 지난 5월 24일 김봉선씨(가명·慶南)에게 포상금으로 4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날 포상금을 받은 김씨는 가짜화발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소 2개소를 신고, 검찰의 기소가 확인되었다.

이날 김씨는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받고 보니 말할 수 없이 기쁘다』고 밝히고, 『고향에 내려가면 주위 사람이나 친지들에게 이 포상제도를 널리 알려 가짜화발유 근절에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極東, 간부 종합건강진단 종업원복지의 일환으로

極東石油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룹의 전간부급사원을 대상으로 강남성모병원(공장은 부산메리놀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

종업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종합건강진단을 점차 확대실시할 예정으로 비용은 전액 회사 부담이다.

極東공장 모내기지원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極東石油 부산공장직원 37명은 지난 6월 8일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으로 경남 양산군 기장읍 청강리에서 주민을 도와 모내기를 하였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일손이 모자라는 농촌에서 직원들은 이날